



3면
민주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범 선언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음 10월 5일) 제33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가예산 복원·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전북도, '워룸' 본격 가동

(War-Room)

김관영 지사, 현안 점검 회의 열고 전략 논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 현안 설명 활동 전개

전북도가 16일 아침 주요 현안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국회 현장의 워룸(War-Room)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수능 시간대를 피해 아침 일찍 열린 회의에서 실·국장들과 함께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법 등 주

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예산 및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도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증액심사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협의

를 전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및 임원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러 여야 의원들과 연속 면담하는 강행군을 벌였다. 또한 계획된 일정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접촉하며 실 틀음이 현안 설명 활동을 전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실·국장들과의 회의에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각오로 긴장감을 가지고 워룸을 가동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국가예산 증액활동과 법안개정 활동에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만큼, 기존의 관례와 형식을 넘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며, "반드시 결실을 거둬내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워룸은 현재의 국가 예산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판단 속에 도입된 것으로, 서울 워룸은 예산안 통과시까지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처가 번갈아 상주하며, 아전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16일 전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실·국장들과 함께 국가예산 및 전북특별법 등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예산 및 입법 전략회의를 가지고 서울 국회 현장의 워룸(War-Room)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도내 6개 시·군 대설 예비특보... 도, 초기 대응단계 가동

내일까지 동부권역 등 많은 곳은 10cm 이상 눈 예상 제설재 사전살포 강화 등 도민 불편 최소화 총력 대응

전북도가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정수 등 도내 6개 시·군에 16일 오후 4시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도내 내륙지역에 2~7cm(많은곳 동부 1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실·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

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대책기간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CCTV 등을 활용한 기상, 도로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설시 가용한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제설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17일 오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갯길, 급커브 등 적설 취약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

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재를 사전 살포해 도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양식 시설 등 농축수산 시설에 대해 지붕 눈살기, 지주보강 및 양식생물 월동장 이동 등 대설, 한파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강설시 재난문자, TV 자막, 마을 방송 및 전광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내집앞 눈치우기 등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낙상사고 등 인명피해가 예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홀가분하네" ... 대입 수능 마친 수험생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장례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시스

2024 수능... 전북, 큰 사고 없이 마무리

전주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치러져 수험생들 "시험 난이도 작년보다 어렵거나 비슷" 반응 이의 신청·심의 등 거쳐 내달 8일 수능 성적 발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북도내 6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시험지구, 총 65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으며,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95명 감소한 1만6,805명이다.

앞선 1교시 국어영역 결시율은 10.47%(1753명), 2교시 수학영역 결시율은 10.32%(1684명), 3교시 영어영역 결시율은 11.10%(1851명), 4교시 한국사 결시율은 11.47%, 탐구 영역 결시율은 12.2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이사항으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종료령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에서 2선택 시험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안지 수정 등 총 7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모두 퇴실 조치됐다.

또 복통 및 감각 등의 증상을 호소

해 예비시험실로 이동하거나 1교시 후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수험생도 나왔다.

이날 수능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됐다. 오후 5시경 전주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많은 수험생들이 교문 밖을 빠져나왔다.

수험생들은 긴장했던 아침과 달리 홀가분한 표정으로 교문 밖을 나서며 아쉬움의 표정도 보였다.

쏟아지는 비에도 일찍부터 학교로 찾아와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다리던 부모들은 반가운 얼굴이 보이자 저마다 큰 소리로 자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 학부모는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수험장을 빠져나온 자녀를 향해 끝장 달려가 껴안으며 격려했다.

우산을 쓰고 자녀를 기다리던 다른 학부모들도 "고생했다", "힘들었지"라

며 수고한 자녀들을 따뜻한 품으로 맞았다.

한 여학생은 그동안 시험공부 하느라 고생했던 친구와 "수고했어"라며 서로를 껴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른바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으나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가 작년 수능보다 어렵거나 비슷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우려했던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국어와 수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 "답분간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좀 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능이 두 번째라는 한 수험생은 "시험이 끝나서 후련하다.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했던 것 같다"면서 "아직 결과는 나와보지 않았지만, 나름 준비한 만큼 잘 본 것 같다"고 미소를 띠었다.

한편,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과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8일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PAPER COREA



군산의 미래가 오는 기회의 도시

디오션시티 더샵 2차

6,000여세대의 메이저 브랜드 주거타운과

전북 유일의 롯데몰 등이 어우러진 디오션시티!

철길공원과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펼쳐진 디오션시티!

새로운 명품복합도시로의 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문화·쇼핑 및 주거 등 명품복합도시

디오션시티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 또는 이미지컨텐츠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